



석파 이하은 작 '괴석목란도'



홍지운 작 '봄'

# D-50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 “우리의 전통 수묵, K컬처 새 장르로 발돋움 기대”

수묵화에 담긴 산과 물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목향의 미와 향기를 세계에 알린다.

올 가을 목포시와 진도군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주제를 비롯해 전시 프로그램, 행사 방향 등을 발표했다. 사무국은 이번 수묵비엔날레를 매개로 우리의 전통 수묵이 K컬처의 새로운 장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리는 올해 수묵비엔날레 주제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송고한 조화 속에서’.

지난 2021년에 이어 이번에도 감독을 맡게 된 이진수 총감독은 “전시 주제는 ‘주역’에 담긴 변화, 그리고 정중동의 미학을 의미한다”며 “서구예술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미술의 새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다양한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움직임과 움직임 사이의 긴장감이 고정화 아닌 움직임과 교차를 견인한다”며 “종이와 붓, 먹이 지닌 파스함이 관객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묵비엔날레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힐링을 제 공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대표 작가 위주로 작품을 선정해 수묵의 화려함과 입체감, 생동감을 연출한다는 복안이다.

전시는 목포와 진도 6개소에서 주전시, 전남도립미술관 등 3개소에서 특별전시가, 14개 시군 19개소에서 기념전이 열린다. 오홍길, 이은실, 조용백, 김병중, 빌 비올라(미국) 등 18개국 29명의 작가가 참여해 수묵의 아름다움과 파스함을 전할 예정이다.

먼저 주전시는 목포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노적봉공원미술관, 대중음악의전당, 남도전통미술관, 윤림산방,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수묵산수를 통한 힐링과 명상, 해외작가들의 레지던시, 서화, 글씨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황실 특별관을 설치해 구한말의 황실유물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황실 주요인물인 흥선대원군, 고종, 순종, 의친왕 등 인물들의 다양한 수묵작품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림산방에서는 문인화의 풍모를 보여주는 대가의 산수화를 비롯해 미디어아트 6인의 인터랙티브 형 작품이 관객을 맞는다.

특별전시는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이진희컬렉션이 예정돼 있으며 모두 60점이 전시된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는 4-5월 정원박람회와 연계해 특별전을 개최했던 홍지운 작가의 ‘봄’을 전시해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수묵의 매력을 전할 계획이다.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에서는 ‘산처럼 당당하게 물처럼 부드럽게’를 주제로 한 특별전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시군 기념전은 나주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보성 군립백민미술관,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갤러리, 영암 하정음미술관, 무안 군립오승우미술관, 담양 담빛예술창고, 장성 황룡강힐링허브 정원 등 모두

14개 시군 19개소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지역 예술단체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모두 13개 프로그램(전시 3, 공연 3, 참여 3, 교육 2, 온라인 2)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수묵제, 어린이수묵제, 영호남작가교류전, 수묵패션쇼, 수묵콘서트, 수묵아트마켓, 수묵아트페어, 작가와의 대화, 수묵아카데미, 수묵버스킹 등이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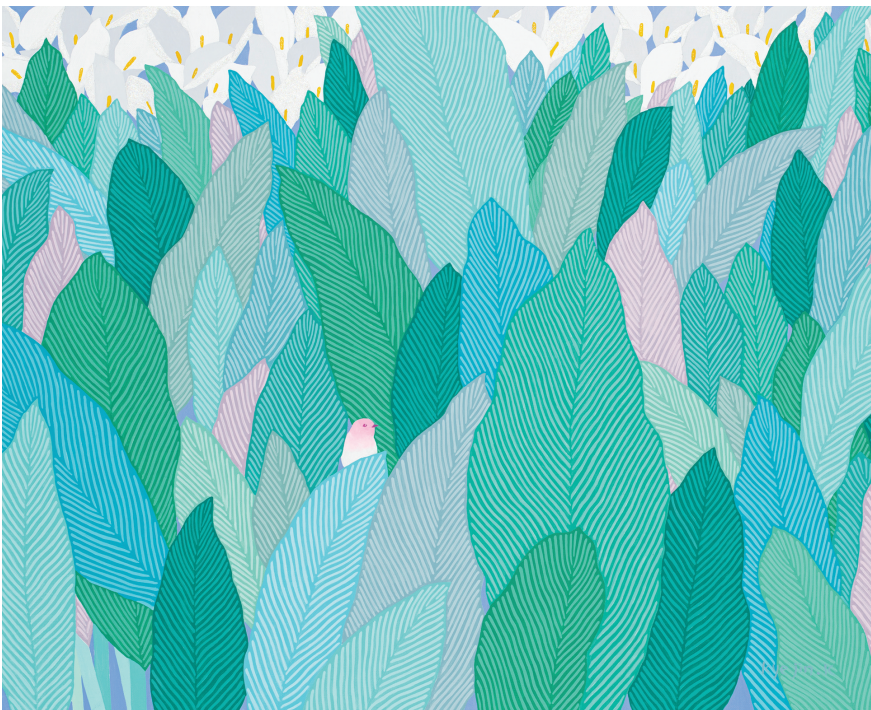
사무국은 이번 수묵비엔날레를 위해 수묵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가수 송가인을 지난 2021년에 이어 2회 연속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9월 1일 개막식 축하공연 등을 통해 수묵비엔날레를 세계에 알린다는 복안이다.

또한 올해는 주한외교사절단을 초청해 수묵비엔날레와 지역영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음악과 함께 공연을 결합한 콘서트 외에도 수묵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며 “묵향 그윽한 가을에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물드는 산, 멈춰선 물-송고한 조화 속에서’ 주제 9월1일~10월31일 목포문화예회관·윤림산방 등서 수묵전시, 국제레지던시, 교육·참여 프로그램 운영



김계진 작 'INNOCENCE'

### ‘더 푸르게’ 그리고 ‘더 그리는 사람들’

주안미술관 ‘더 그리너’ 전, 19일까지 작가 5명 참여

작가들의 작업세계를 모티브로 그들의 작업과 예술에 대해 친밀하게 알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자연친화적인 모습을 담은 작품은 관객들에게 힐링의 감성을 선사한다.

주안미술관이 오는 19일까지 진행하는 ‘더 그리너’ (The Greener)가 그것. 이번 기획전은 지난 2021년부터 ‘작업라운지’라는 주제로 기획됐으며 모두 5인의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 주제 ‘더 그리너’ (The Greener)는 ‘더 푸르게’ 그리고 ‘더 그리는 사람들’의 의미를 담고 있다. 김계진, 윤연우, 이경옥, 이유빈, 정소영 5명 작가가 ‘녹색’을 바탕으로 작업했다.

김계진 작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예쁜 딸이 태어난 날과 오래 전 카라꽃을 선물 받은 때다. 작가는 ‘순수’를 상징하는 카라꽃의 아름다움을 매개로 기쁨과 행복을 표현한다.

윤연우 작가는 전통 직조 방식인 태피스트리 기법과 드로잉 작업을 통해 ‘숲속의 나’를 드러낸다. 숲과 하늘, 바다 등이 지닌 저마다의 푸름을 깊이 있게 드러낸다.

이경옥 작가는 변영의 여신 페르세포네에 초점을 맞췄는데 여신의 귀환은 녹색을 띠고 촉박이 넘치는 봄을 의미한다. 작가는 무심히 지나쳤던 자연에 생각과 감성을 부여한다.

모든 작품에 일상에서 채집한 풍경 이미지와 사유 공간인 ‘섬’을 등장시키는 작품도 있다. 이유빈 작가에게 섬은 심리적으로 타인과 나를 경계짓는 안정적인 공간이다.

정소영 작가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의 반짝거림에 자신의 감정을 실는다. 현실과 기억, 한 시점에 시작되는 반복은 변형된 새로운 인상으로 표현된다.

송진주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에서는 푸릇푸릇한 녹색 풍경에 매료된 작가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한 작업과 결과물을 볼 수 있다”며 “무덤고 습한 장마철에 자연친화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의 나이듦과 가사노동의 가치를 담다

9월27일까지 ‘CONNECT’ 전 10월6일까지 ‘집에서 노는 여자들’ 전

“나는 새내되고 십지 아니해, 녀차처럼 좀 준귀한 맛이 있어서야 안 그러소”(나혜석 시인) 광주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에서 두 개의 의미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먼저 지난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CONNECT’ 전은 여성의 나이 듦과 존재에 대해 예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여성주의, 생태주의 등 동시대 담론을 성찰한다. 오는 9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지난 제6회 허스토리(HERSTORY) 공모를 통해 발굴한 총 4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작가들은 지구 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체’라는 관점 아래 인간과 동물, 인간과 비인간동물, 자연 등의 관계를 다시 바라본다. 전시작품은 총 20점.

첫 섹션은 김도희 작가가 인간과 비인간동물(물질)에 주목했다. 작품은 오래되고 낡은 동네의 슈퍼, 고양이, 카드, 입간판 등을 담고 있다. 작가는 필멸하는 대상은 순환한다는 거시적 관점 아래 연대의 메시지를 건넨다.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김키미 작가의 작업물도 눈길을 끈다. ‘산도 매일 자신을 비취보는데 내가 나를 낚아 많이 않구나’라는 판화 속 작가의 메시지는 자연과 인간을 걸쳐보게 만든다.

해움(김정), 여울(김혜숙)이 그려내는 ‘여성의 나이듦’은 마지막 섹션에 자리한다. 월경을 마무리하는



김키미 작가의 포스터, 판화, 엽서 등.

‘월경’ 과정에서 여성들은 해방감과 여성성의 상실이라는 불안을 동시에 경험한다. 여성의 몸을 통해 전달하는 작품의 은유적 목소리는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또다른 기획전 ‘집에서 노는 여자들’도 흥미롭다. 오는 10월 6일까지 이어지는 전시는 여성인권과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작가 한병아의 ‘우주의 끝’, 정연주의 ‘집나방’ 등은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카프카의 변신을 떠올리게 하는 ‘집나방’은 가사노동을 엄마의 ‘십자가’에 비유한다.

예수가 부활한 메시아와 모성의 존재를 오버랩해 여성이 불온한 나방으로나마 다시 태어나려는 집념에 초점을 맞췄다.

정미경 성평등문화팀장은 “이번 전시는 연대하는 여성과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동안 그림자에 불과했던 존재들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며 “전시회를 통해 여성의 나이듦과 노동의 가치를 숙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취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화평시장에 송아지 동상을 세울 수 있을까

극단 청춘 ‘화평시장 CCTV’ … 18~22일 예술극장 통

현대사의 격동기를 거쳐온 ‘화평시장’은 송아지 동상 건립 문제로 상인들 간에 의견이 대립한다. 상인회장은 시장의 발전을 명목으로 건설사가 요청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시장을 옮겨, 그곳에 김밥을 입에 물고 있는 송아지 동상을 세워 시장의 랜드마크로 만들려 한다. 건어물집 사장 전씨는 상인회장이 무엇인가 공공이 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극단 청춘이 연극 ‘화평시장 CCTV’를 오는 18일부터 22일(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예술극장 통에서 초연한다.

제목에 CCTV가 붙는 이유는 이번 공연이 막과 장이 바뀌는 일반적인 공연과 달리 90분의 러닝타임 내내 장

소 이동이 없기 때문이다. 마치 CCTV로 화평시장이 품은 삶의 단면을 지극히 활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 사는 시장 이야기를 담아내는 만큼 공연은 활발한 분위기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중 순대 등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며 이동과 촬영도 제한되지 않아서이다.

이번 연극은 선유현 작가가 쓴 작품을 오설균이 연출했으며 한중곤, 윤미란, 표정화, 최시영, 한창현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티켓 2만 원, 연극인은 1만 원에 예매할 수 있다. 사전예매 시 1만 4000원에 관람가.

/취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